국공립유치원 확대… 예산확보 · 돌봄시간 5시까지 운영 문제

단설 예산만 3000억 예상… "교사 정원 미정이라 인건비 추계 어려워"
맞벌이 부부 배려한다지만 직장인 퇴근시간과 1시간 차이 실효 우려

교육부가 6일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국·공립유치원 돌봄 시간은 내년 3월부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에 한해 오후 5시까지 보장하기로 했지만, 직장 퇴근시간이 일반적으로 오후 6시인 것을 감안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 1000억원 필요… 단설 신설·매입·공영화 돈 들어갈 데 '수두룩'

유 부총리는 지난 10월 유치원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당시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5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 부총리는 "인건비나 통학버스 운행 관련 예산지원 폭 등 아직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고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해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질의를 받은 뒤에야 필요한 예산을 "1000억원 내외"로 예상했으며, 이 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부분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유치원으로 개·보수하는 병설유치원으로 확충하다보니 시설비가 크게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비에 약 500억원, 행정직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와 통학버스 배치에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큰 돈이 들어갈 곳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각 시·도로부터 단설유치원 30여곳 신설 추진계획을 심사한다. 서울에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할 때 100억원이 들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예산만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6곳의 유치원을 사들이고 88학급 규모의 공영형 유치원을 선발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다.

교사인력을 위한 인건비도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 3월에 약 180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에 배치받지 않은 임용대기자와 방과후 수업 정규교원을 재배치해 우선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9월 교사 인력은 아직 미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정확히 추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에 개원하는 유치원에 388개 학급에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 1명씩 선발 시 초봉 약 186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에 86억원이 필요하다. 돌봄 시간이 연장되면서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확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왔다"면서 "내년에 500개 학급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을 당시부터 9월 교사 인력 수급을 논의했다. 차질없이 3월에 추가로 배치돼야 하는 교사와 9월 배치 교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92학급이 추가로 증설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 2월 교부금이 확정될 때 우선 반영하고, 그 전에 필요하면 교육청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퇴근 직장인 多…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기준 8시간"

맞벌이 부부를 배려한 조치라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내 기업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 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유치원 돌봄이 5시에 마치더라도 6시까지 1시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유아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을 오후 5시까지 보장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2시까지 운영했지만 앞으로 3시간 더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서울은 온종일돌봄 에듀케어로 보장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운영 편차가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부분은 맞벌이 부부의 유아는 필요하면 방과후 과정인 5시 오후돌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방학기간도 오후 5시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후 5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과 지원금이 최대 8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8시에 등원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오후 5시에 8시간이 채워진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근로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직종에 맞벌이로 근무할 경우에는 보다 충분한 돌봄 시간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퇴근시간과 돌봄 시간이 맞아떨어지더라도 이동 시간 때문에 맞지 않아 다른 조부모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원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교사 재량으로 아이를 추가로 돌볼 경우 학부모의 심적 부담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易)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유연·탄력근무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 돌봄시간이 여유 있게 확보되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년 중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외 아침·저녁 돌봄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시간을 함께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청정 전북교육 실현 전년대비 한단계 도약

전북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등급 달성… 청렴정책 추진 성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8.44점으로,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교육청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했고, 지난해 보통등급(3급등급)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전북교육청이 종합청렴도 8.44점, 외부청렴도 8.79점, 내부청렴도 8.18점, 정책고객평가 7.44점이라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의지를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정책을 강화하고 실천해왔다. 특히 급식, 운동부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교직원 뿐만 아니라 방과후강사, 급식납품업체, 공사업체 등 관련 민원인들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해 잠시 주춤했던 조직청렴도에 대한 우려를 씻는 결과이자 전북교육가족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정 전북교육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조성환 책임연구원 신간 출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성환 박사가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모시는사람들, 2018년)'를 출간했다. '한국 근대의 탄생: 개화에서 개벽으로'는 지난 1세기 동안 서구 학문과 그 방법론의 수용 및 이식(移植)에만 열중했던 개화파(開化派)나, 서구 학문의 수용을 거부하고 전통 고수에만 집착했던 척사파(斥邪派) 틈바구니에서 온갖 고난을 겪어 왔던 개벽파(開闢派) 사상과 실천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있는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벽파의 기점을 1860년 동학(東學) 탄생으로 본 조성환 박사는 개벽파는 후 동학(後東學)인 증산교로 이어지고, 다시 후후 동학(後後東學)인 원불교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개벽파야말로 서구의 근대와도 다르고, 일본의 근대와도 다른 '자생적 근대'를 추구하고, '자생적 근대'의 핵심은 바로 '영성'을 중시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철학과와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한 조성환(한국철학 전공) 박사는 지난해 번역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모시는사람들, 2017년)'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후원 아래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 근대한국 개벽종교 사상과 실천운동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 및 '공공성' 양상을 조명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된 '한국 근대의 탄생'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원불교사상연구원의 학문적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올바른 식습관으로 어린이의 건강 챙기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편식 예방 식생활 체험관 마련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 교수)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체험관에서는 손씻기, 식품구성 자전거를 통한 고른 영양섭취, 우리 몸속의 소화 과정 등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내용의 콘텐츠가 구성돼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 시설을 활용해 지난 4일 부모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편식 예방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토마토 요리노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2가족이 참석했으며, 부모와 함께 토마토와 관련된 인형극을 시작으로 토마토와 친해지기, 토마토 오감체험, 토마토 요리활동 등으로 식재료 편식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유아들의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정옥 센터장은 "편식하는 식재료를 선정해 푸드브릿지를 활용한 실질적인 영양교육에 부모님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 아이들의 식습관 지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 체험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 공고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6일 2019년도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전형을 공개시험제도와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 6과목을 공개전형 시험으로 치르고 일반사회 외 12과목(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보건·전문상담·초등교육)은 학교장(기관장) 평가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한다.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명예퇴직교직원을 등재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임용시험 1차 및 전북사립학교 연합회 주관 임용시험 1차(공립 위탁 포함) 시험 이상 합격자를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등재할 수 있게 하여 학교(기관)에서 우수한 기간제교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는 10일~17일 18:00까지 8일간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시험은 2019년1월26일 10:00에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http://jb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